

2026 한림법학원 GS2 순환 인사노무관리론 8 회차

채점 루브릭

과목	인사노무관리론	주제	노사관계관리 / 이탈관리
회차	8 회차	총점	75 점

1. 채점 총칙

- 본 루브릭은 문제지의 요구사항과 예시답안의 논리 전개를 기준으로, 실제 채점 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논점을 세분화한 것이다.
- 문항이 요구한 것은 단순 정의 암기가 아니라 개념 설명, 제도 간 구별, 사례 적용, 실무적 방안 제시까지 포함한 서술형 답안이다.
- 배점은 핵심 논점 포착 정도, 개념 정확성, 비교·구별의 명확성, 사례 적합성, 구조적 서술력에 따라 부여한다.
- 답안이 예시답안과 표현이 다르더라도 취지와 논리, 사례 연결이 타당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 반대로 키워드만 나열하고 제도 간 차이 또는 사례 적용이 없으면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채점 원칙

- 핵심 개념은 맞으나 특징·목적·법적 성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해당 항목 만점의 50~80% 범위에서 부분점 부여.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전직지원서비스와 단순 금전보상처럼 제도의 본질을 혼동한 경우 해당 항목은 중감점.
- 사례형 문항에서 사례 문장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이론 서술이라도 사례적용 항목에서 감점.
- 비교 문항은 축을 세워 구별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 병렬 나열만 있으면 비교 항목은 만점 불가.
- 실무 방안 문항은 추상적 선언보다 의제 분리, 정보공유, 맞춤형 설계, 절차적 공정성 등 실행 가능한 장치를 제시했는지로 평가.

점수대 판정 가이드

점수대	판정 기준	채점 메모
67~75 점	두 문항의 핵심 논점을 대부분 정확히 포착하고, 제도 구별·사례 적용·운영방안이 균형 있게 제시된 답안.	상위권
55~66 점	주요 개념은 대체로 맞으나 비교축 또는 사례 적용, 세부 효과·한계·방안 중 일부가 약한 답안.	중상권
40~54 점	교과서적 일반론은 있으나 문제에서 요구한 구별과 적용이 부족하고, 누락 논점이 적지 않은 답안.	중위권
0~39 점	핵심 제도 개념 혼동, 사례 미적용, 단편적 키워드 나열	하위권

	수준으로 문항 요구 충족도가 낮은 답안.	
--	------------------------	--

2. 총괄 배점표

문항	핵심 평가내용	배점	비고
문제 1	단체교섭·노사협의회 개념/특징, 차이점, 적합 영역,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40 점	노사관계관리
문제 2	전직지원서비스 개념/목적, 해고자·기업·정부 효과, 한계, 운영방안	35 점	이탈관리

3. 문제 1 채점 루브릭 (40 점)

문항 포인트: 사례에서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단체교섭으로 해결하려 하고, 회사는 생산성·경영효율 문제를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려 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분명히 구별한 뒤, 각각의 적합 영역을 사례에 대입하고, 둘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실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가항목	배점	만점 기준	부분점 및 감점 기준
① 서설 및 쟁점 정리	2 점	사례의 핵심이 "임금·근로조건은 단체교섭, 생산성·경영효율은 노사협의회"라는 의제 구분과 양 제도의 조화로운 활용에 있음을 제시.	쟁점 언급이 있으면 1 점. 단순 문제 재진술 수준은 0.5 점 내외.
② 단체교섭의 개념과 특징	8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제도임을 밝히고, 노동조합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 쟁의행위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대립·협상적 성격, 결과가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시.	개념만 쓰고 전제·성격·결과를 누락하면 4~6 점. 노사협의회와 혼동하거나 "경영 전반 협의기구"처럼 쓰면 0~3 점.
③ 노사협회의의 개념과 특징	8 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경영사항을 협의·자문·부분 공동결정하는 기구임을 밝히고, 조합 유무와 무관하게 운영 가능, 쟁의행위 위협이 없는 협력기구, 협의·의결·보고사항 중심, 정기회의 운영 등의 특성을 제시.	개념만 있고 협력성·운영특성 누락 시 4~6 점. 이를 임금·근로조건 직접 협상기구로 오인하면 0~3 점.
④ 단체교섭과 노사협회의의 차이점 비교	8 점	최소 4 개 비교축 이상을 명확히 제시. 예: 주체/전제, 목적·기능, 대상 사항, 성격(대립/협력), 배경(쟁의 가능성 여부), 결과물·법적 효력(단체협약 체결 여부).	2~3 개 축만 비교하면 4~6 점. 병렬 나열만 있고 비교축이 드러나지 않으면 2~4 점. 핵심 차이를 뒤바꾸면 중감점.
⑤ 사례에서 적합한 활용 영역 제시	6 점	임금수준·임금구성·근로조건 변화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단체교섭 영역, 생산성 향상·업무프로세스 개선·경영효율·작업환경·고충처리 등 공동이익 사안은 노사협의회 영역으로 구분. 혼재사안은 분리·연계 운용 필요성을 설명.	단순히 "둘 다 중요하다" 수준이면 2~3 점. 사례 문장과 직접 연결하면 가점성 부분점. 혼재사안 연계 논의가 없으면 1~2 점 감점.

⑥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8 점	의제 분리와 절차 명확화, 정보공유와 신뢰 형성, 정기적 협의와 비공식 소통 병행, 공동이익 관점의 제도설계, 절차적 공정성과 이행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방안 2~3 개만 제시하거나 추상적 선언형이면 4~6 점. 사례와 무관한 일반론만 있으면 2~4 점. 실행장치가 구체적일수록 고득점.
-----------------	-----	--	--

문제 1 상한 기준 및 주요 오답 처리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두 제도를 거의 동일한 협의기구로 서술한 경우: 문제 1 은 원칙적으로 24 점 상한.
- 임금·근로조건도 노사협의회에서 직접 확정된다고 서술하거나, 단체교섭을 생산성·경영효율 일반 논의기구로 서술한 경우: 관련 항목 중감점.
- 차이점 비교 없이 각 제도를 따로만 설명한 경우: 비교 항목은 만점 부여 금지.
- 사례 적용 없이 일반론만 서술한 경우: 활용 영역 및 구축방안 항목에서 합산 3~5 점 감점.

4. 문제 2 채점 루브릭 (35 점)

문항 포인트: 전직지원서비스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퇴직자 지원에만 머무는 제도가 아니라, 소송 가능성·기업이미지·잔류자 동요까지 관리하는 이탈관리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해고자·기업·정부의 효과를 구분하여 쓰고, 형식적 운영 위험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항목	배점	만점 기준	부분점 및 감점 기준
① 문제의식 및 사례 쟁점 포착	2 점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해고자 충격, 소송위험, 이미지 훼손, 잔류자 동요를 전직지원서비스로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	사례의 비용부담·형식운영 비판까지 짚으면 만점. 단순 일반 서설은 0.5~1 점.
② 전직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7 점	구조조정·해고로 조직을 떠나는 종업원의 재취업·경력전환을 지원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임을 설명하고, 인생설계·재취업·재교육·창업지원 등을 언급. 목적은 충격 완화, 사회적 책임 실천, 이미지 관리, 노사갈등 완화, 잔류자 안정까지 제시.	개념만 있으면 3~4 점. 목적을 1~2 개만 쓰면 4~5 점. 단순 금전보상이나 퇴직금 제도로 오인하면 0~2 점.
③ 해고자에 대한 효과	4 점	재취업 기회 확대, 경력재설계, 심리적 충격 완화, 자신감·성취동기 회복, 경력단절 최소화 등을 제시.	재취업 촉진만 쓰면 2~3 점. 단순 생계보장 수준의 서술은 제한적 부분점.
④ 기업에 대한 효과	4 점	소송 가능성 완화, 기업이미지 보호, 노사리스크 감소, 잔류자 불안 완화, 장기적 비용절감과 조직 안정 효과를 제시.	이미지 개선이나 소송감소 중 일부만 쓰면 2~3 점. 사례와 연결 없으면 만점 불가.
⑤ 정부에 대한 효과	4 점	실업기간 단축, 재취업 촉진, 노동시장 안정, 복지·실업대책 비용 완화,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제시.	정부 효과를 사회 전체 일반론으로만 쓰면 2 점 내외. 완전 누락 시 0 점.
⑥ 전직지원서비스의	6 점	형식적 운영의 위험, 획일적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기업 비용부담, 잔류자 관리	한계 2 개 정도면 3~4 점. 노조의 형식운영 비판과 연결하면 고득점.

한계		미흡 시 효과 반감 등을 제시.	
⑦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8 점	당사자 간 협조,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고용보험제도 적극 활용, OPC 와 IPC 병행, 절차적 공정성과 진정성 확보, 성과점검 등을 제시.	운영방안 3 개 이하이면 4~5 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 수단(고용보험 활용)과 잔류자 관리(IPC)를 함께 쓰면 고득점.

문제 2 상한 기준 및 주요 오답 처리

- 전직지원서비스를 단순 해고수당, 퇴직금 추가지급, 위로금 지급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문제 2 는 원칙적으로 17 점 상한.
- 해고자 효과만 쓰고 기업·정부 효과를 누락한 경우: 효과 항목 합산 상한 6/12.
- 한계 없이 순기능만 열거한 경우: 한계 및 운영방안 항목에서 최소 3 점 이상 감점.
- 형식적 운영 위험에 대한 응답 없이 추상적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정도로 끝나면 운영방안은 만점 불가.